

# 정기국회 첫날 여야 예산·입법 신경전

### 민주 '생산적 민생 국회 만들자' 야당, 소득주도성장 비판 3당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처리 쟁점법안 논의 합의 불발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3일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해 회기 내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자면서도 쟁점 처리 법안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크다. 특히 여권이 제시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을 집중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 태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실제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 했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마다 쟁점 법안 목록을 공개한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동 시작 후 김성태 원내대표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나면서 협상은 진척 없이 중단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본회의 이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회의장에서 떠난 후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규제 관련 법안도 여야 이견이 있어서 진동이 예상된다"며 "다만 가급적 빨리 처

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인권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며 운영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손학규 대표에 취임 축하전화 "국회서 협조 많이 해달라"…5당대표 초청 계획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취임 축하전화를 걸어 "남북 관계와 경제문제, 소상공인 문제에서 협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분기량 진행된 손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손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당 대표들이 다 바뀌었으니 당 대표들을 한번 초청을 하겠다"며 머지않아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대표는 "(구체적인 시기는) 이야기 안 했고, 곧 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데 (대통령이) 야당, 국회하고 협조를 잘 하시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협치를 제대로 진정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의정계서 앞으로

개헌을 잘 주도하시고, 개헌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인사차 문 의장의 찾아가 "문 의장이 취임하셔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의정계서 개편 이래로 촛불혁명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장은 "우리가 거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정신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고 맞장구를 치고는 "개헌과 개혁 입법에 국회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이 촛불혁명을 바로 이어서 인수수도 없이 출발해 코드 인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적폐청산을 강조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그건 숙명이다"라며 "근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외대의 계절이 가고 국회의 계절이 오는데 지금 타이밍이 국회로 왔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신임 사무총장에 윤호중 의원

### 수석 부의장 한정애·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

새 대표를 뽑은 여야 주요 정당이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조직 준비를 완료해 가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3선의 윤호중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사무총장과 예결위 간사의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예결위 간사를 다른 의원이 대신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 여성 재선인 한정애 의원을 내정했다. 한국노총 대의협력본부장 출신인 한 의원은 19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뒤 20대 국회에선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밖에 지명된 최고위원 2자리 가운데 노동계류 1석은 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낸 이수진씨가 단수로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이해찬 대표가 인선 부평구청장 출신인 홍미영 전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지난주말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바른미래당은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 의를 주재한 뒤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오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도부 사이에서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임했다.

감사원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윤 신임 정책위의장은 초선이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선미 의원이 맡아왔으나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윤동근 출신인 서 의원은 19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종부세 강화 이어 공급 대책 주문...민주 '집값 잡기' 파상공세

### 새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잡기에 적극 나섰다.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단 부동산대책에서만큼은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앞선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

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당한 거래나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여당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추가 30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를 해서 가급적 추석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조

세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계속된 부동산대책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의 당정관계 재정립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대표의 최근 발언은 부동산 시장 문제가 매우 엄중한 만큼 이번에는 당이 확실히 중심을 잡겠다는 의미"라며 "의원들은 물론 대의원들도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에 가려 당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러한 견해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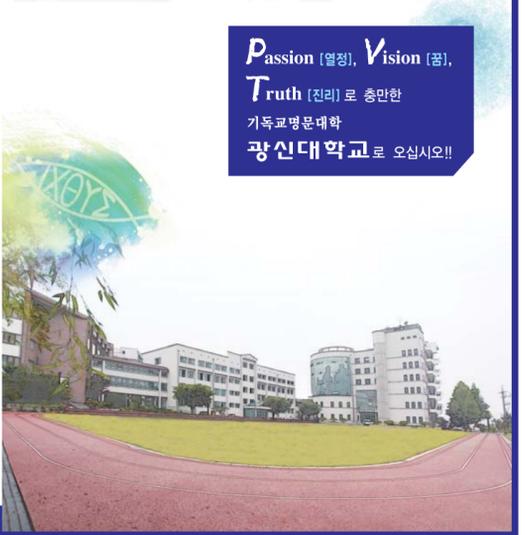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모인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전공 / 교정행복교육상담학 전공)	31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